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18일 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18호

선군의 기치따라

2.16경축 집단체조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1만명 청소년 학생들의 집단체조 ≪선군의 기치따라≫가 16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홍성남내각총리를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집단체조를 관람하였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축하단들과 해외동포들이 집단체조를 보았다.

그리고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단체조 ≪선군의 기치따라≫는 ≪총대로 조선을 빛내리≫, ≪선군의 그 업적 잊지 않으리≫, ≪신념과 의리로 받들자≫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집단체조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수십성상 조선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 쌓아 올리신 혁명업적을 체육예술의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 보였다.

집단체조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놓은 그 기백으로 주체의 사회주의길로 질풍같이 달려 기어이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붉은기를 휘날리려는 인민군대와 인민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집단체조는 높은 사상예술성과 출연자들의 씩씩하고 세련된 체육기교, 재치 있는 대형 및 조형변화로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기자들과 회견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4일 평양에서 가진 국내외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21세기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 따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금 남조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이 전 사회적인 감정으로 승화되여 대세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남조선의 주요신문 7종과 잡지 14종에서만도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700여상을 정중히 모시고 위대성기사 900여건을 게재하였다.

학계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업적을 깊이 연구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연구≫,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연구≫ 등 지금까지 거의 취급하지 않던 부분까지 연구교육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소개선전하는 사업에서 청년주체주의자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수록한 전기형식의 위대성총서 ≪**김정일**≫이라는 단행본이 공개출판되고 위대성선전물들이 합법적인 정기간행물로 보급되고 있으며 장군님의 위대성을 소개하는 인터네트싸이트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크게 격동시키고 있다.

그는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끝까지 따를것이며 다함 없는 충성의 한길에서 통일조국의 새날을 맞이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박광기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숭배심을 보여 주는 록화물을 보았다.

2.16 특집 (3)

1 선군의 기치따라
1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2 영 광 (2.16동지회)
2 **김정일**총비서께 축전 (로씨야대통령 / 중국공산당)
3 2월의 명절을 맞은 평양
4 민족의 자랑 시대의 영광
4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 참가자들의 백두산선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5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세기와 더불어

7 2장 4절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한국민족민주전선

9 민족의 역적을 기어이 매장하자
9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6일

광고

15 PDF총서 ≪21세기 태양≫ 10. 정치원로

조선중앙통신

10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노동신문사설 주체91, 2월 16일

아리랑뉴스

12 부시 방한 D-3, 전국 ≪비상시국≫
12 서울 -조지 부시, 한 발자국도 어림없다
12 광주전남 – 7천만겨레의 분열일삼는 부시반대
12 목포 – 전쟁반대, 평화실현, 부시방한반대
12 민노당소속 향토예비군 반전시위
13 부산 – 한반도에 전쟁만 몰고오는 부시방한 반대한다
13 대구경북 – 한민족 이간질하는 부시 오지 마라
13 대전 – 부시! GO HOME!
13 평화기원 집회 / 도교서 반전시위
14 유럽연합, ≪양키의 오만≫ 정면성토
14 부시 기자회견 내용과 의미
14 부시, 서울서 ≪악의 축≫ 후퇴 안할 듯

운동강좌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1)

조국통일3대헌장

16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7.4남북공동성명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영 광

삼가 백두장군님께 축원드립니다 - 2.16동지회

손길 닿으신 곳에서
여지없는
사랑이 피어 오릅니다.

삼천리 강산 흐드러지게
피어난,
김 . 정 . 일 . 화

만세소리 천지를
진감케한
그이의 존함, **김 . 정 . 일**

아!
그 이름도 빛이 되신
우리의 장군
21세기 태양
그 이름도 빛나는
김 . 정 . 일 장군!

똑같으신
하나의 태양
김 . 일 . 성 민족의 가장
크신 이름

그이는 우리의
영도자

러시아로 떠나시는 그
열차는
인류 구원의 종소리 였습니다.

군복 입은
선군 정치의 선봉장이
백악관에 들어 서고 있을 때
저희는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만세!!!
김 . 정 . 일 장군 만세!!!

장군님이 계셔
저희 복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조국 통일 입니다.

우리끼리의 통일 명제는
거연하게 피어 오르는
승리의 함성
오늘도 승리의 찬란한 송가입니다.

이 대경사날
그저
저희의 유일무이한
걱정이 있다면
장군님의 만수무강 뿐입니다.

그러시기만 하신다면
위대한 심장의 박동을,
인류 구원의 박동을,

결사 옹위할 것을
삼가 맹약 드립니다.

주체 91년 2월 16일
소백산 기슭에서
2.16동지회가 삼가드립니다.

김정일총비서께 로씨야대통령이 축하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각하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당신의 뜻 깊은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는바입니다.

당신께서는 조선과 로씨야의 전통으로 볼 때 현명성과 원숙성의 나이로 간주되는 60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책임적인 시기에 맞이하고 계십니다.

로씨야는 사회경제적복리를 위한 귀국의 전진운동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에 기초한 두 조선국가의 대화와 북남의 자주적인 가일층의 접근을 지지합니다.

나는 우리들사이의 상봉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회깊이 회상합니다.

우리는 2001년에 진행된 당신의 모스크바방문시 이룩된 전략적인 합의들을 시종일관하게 리행하려 한다는것을 확인하는바입니다.

나는 로조협조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가 모든 분야에서의 유익한 호상협력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기초로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일각하,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활동에서 가일층의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뿌찐
모스크바, 크레믈리
2002년 2월 16일

김정일총비서께 중국공산당에서 축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우리는 당신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하고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의 령도밑에 조선의 전당, 전군, 전민은 일심단결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들을 극복하였으며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추진하며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위업수행에서 끊임 없는 새로운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을 반드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과 강택민총서기의 중시와 관심속에서 그리고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두 나라 로세대 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키워 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은 조선 당과 정부, 인민들과 함께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 세울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당신의 탄생 60돐을 맞는 경사스러운 이 시각 우리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조선당과 인민을 령도하시여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위업수행에서 끊임 없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002년 2월 16일
베이징

2월의 명절을 맞은 평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60회 탄생일을 맞아
조화와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평양시 전경

2. 16경축 중앙보고대회

조선에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을 맞으며 2. 16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5일 평양의 4. 25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공동축하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이 전달하였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김정일**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이 연설하였다.

인민무력부에서 연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15일 저녁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은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찌부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당, 국가, 군건설과 관련한 모든 리론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고 그를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에 세기적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무관단 단장인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무관 엄강풍은 연설에서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주석동지의 위업을 받드시고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그리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정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백남순외무상, 리광근무역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 영화감상회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는 1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평양시내 화교들이 초대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령

경축보고대회에 참석한
해외 축하객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60회 탄신일 경축보고대회

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를 감상하였다.

2.16경축행사들 진행

조선에서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행사들이 15일에도 계속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무력부 야회가 전승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축일색으로 장식된 광장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의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자 륙해공군장병들의 춤바다가 펼쳐 졌다. 조선인민군 장령들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당기, 공화국기를 중심으로 펼쳐 진 춤판에 뛰여 들어 전사들과 춤을 추었다.

조선인민군부대들에서도 2.16경축 보고대회, 위대성발표회, 사진전람회, 강연회, 영화관람, 체육오락경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인민보안성앞 광장에는 줄축포가 터져 오르고 인민보안성청년전위들의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 졌다.

한편 2.16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진행되였다.

2 .16경축공연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15일 평양대극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장병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외국손님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공연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 ≪애국의 꽃≫이 15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꽃중에서도 제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애국의 꽃을 삼가 드리려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감명깊이 형상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강능수문화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백두산밀영에서 지난 14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 2월16일을 상징하는 2천160발의 축포가 발사되고 있다. 화려한 불꽃 사이로 어렴풋이 정일봉이 보인다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60돌을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민족의 자랑 시대의 영광

논설 - 구국의 소리 주체91 2월 16일

≪민족의 자랑 시대의 영광≫ 논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담당에 오일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추앙을 받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각계 애국민중은 절세위인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해서 가슴은 마냥 설레이고 있으며 그분의 향도밑에 천리길 만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불굴의 신념에 넘쳐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유구 반만년의 역사에서 우리 단군민족이 지구촌의 중심에 우뚝서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자랑찬 민족으로 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무상의 영예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광복대전으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주체의 이상향 이북을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욱 반석같이 가꾸어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 최대의 민족적 선물입니다.

일찍이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성상 그분께서는 오직 조선을 빛내이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강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민족자주위업을 성공리에 이끄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바치셨으며 그 노정위에 민족만대에 기리 빛날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자주정치의 대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민족과 겨레의 운명개척의 방향타로 거머쥐시고 그 휘황한 빛발로 이북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인류의 이상향을 더욱 반석같이 가꾸고 활짝 꽃피워주셨습니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 그분께서는 북으로 쏠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적 책동을 선군정치의 위력한 무기로 짓부수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셨습니다.

지난날 은둔국 식민지 약소국으로 세계에 빛을 잃었던 우리 민족이 지구촌에 각광을 받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음한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주석님과 그분의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북 땅위에 빛내이시기 위해 정력적인 투쟁을 벌여오신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 공적입니다.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경륜을 이 땅에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해 헌신하셨으며 통일의 새로운 서광을 안아오신 분도 **김정일**영도자님이십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애국의 의지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경륜을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광폭의 도량으로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어 민족통일의 한 전선에 세워주셨을뿐 아니라 비범한 예지와 대용단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55시간이라는 역사의 한순간에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심으로써 민족의 앞길에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역사적 사명으로 간주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또한 자주성실현의 휘황한 활로가 열리고 그분의 탁월한 영도와 높으신 국제적 권위로 해서 오늘 지구촌은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온 인류가 그분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과 인류사에 영원불멸할 대업적을 이룩하고 계시는 만고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이 계셔 끝없이 빛나는 민족의 존엄이 있고 무궁번영할 통일조국의 휘황한 앞날이 있으며 인류의 자주적인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정녕 민족과 인류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며 후손만대의 번영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의 자랑이고 시대의 영광입니다.

하기에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2월의 명절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각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을 안고 그분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으며 그분을 따라 천리만리의 험로역경도 과감히 헤쳐나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랑과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통일경륜을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영광의 통일단상에 장군님을 모시고 자자손손 복락할 역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백두산선언

우리들, 세계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대표들과 국제민주단체 대표들, 사회정치활동가들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과 존엄의 상징인 백두산에서 2002년 2월 13일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을 열고 이 선언을 발표한다.

우리들은 인류사상 거대한 정치적변혁들이 기록된 지난 20세기를 돌이켜 보면서 시대와 인류가 나아갈 옳바른 길을 개척하고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백두산위인들의 빛나는 생애와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칭송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는 백두산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추켜 드시고 인간해방, 민족해방을 위한 세계피압박근로대중의 장구하고도 력사적인 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20세기의 위인,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태양의 위업을 이어 받으신 **김정일**각하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새 세기 인류의 자주위업을 확신성 있게 주도해 나가시는 실력가형의 특출한 정치가이시다.

그이께서는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 비상한 정치감각과 탁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과 령활한 지략, 무한대한 식견과 출중한 인품을 지니시고 조선의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고 계신다.

특히 우리들은 20세기 마지막년대와 지난해에 그이께서 진행하신 정력적인 정치, 군사, 외교활동들을 커다란 기대와 경탄속에 주시하면서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세계정치의 거장이시라는것을 확신하였다.

력사의 체험과 오늘의 현실, 세기가 부여한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희세의 위인이 있어 인류의 자주위업이 드디여 실현될 21세기를 여기 백두산에서 내다보며 엄숙히 선언한다.

1.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인류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실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전 인류의 태양송가로 부르면서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활동들을 힘 있게 벌려 나갈것이며 특히 매해 2월부터 4월까지를 ≪21세기의 태양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을 주기로 태양의 성지방문을 정례화해 나갈것이다.

2.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영원한 기치이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김정일**각하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하고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해 나갈 때 21세기는 나라와 민족들간의 평등과 자주권, 국제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된 진정한 인간 존중의 세기, **김정일**세기로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는 진보적인류의 성새이고 보루이다.

우리들은 력사의 온갖 도전들을 짓부셔버리며 승리적전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활동을 세계적판도에서 과감히 전개해 나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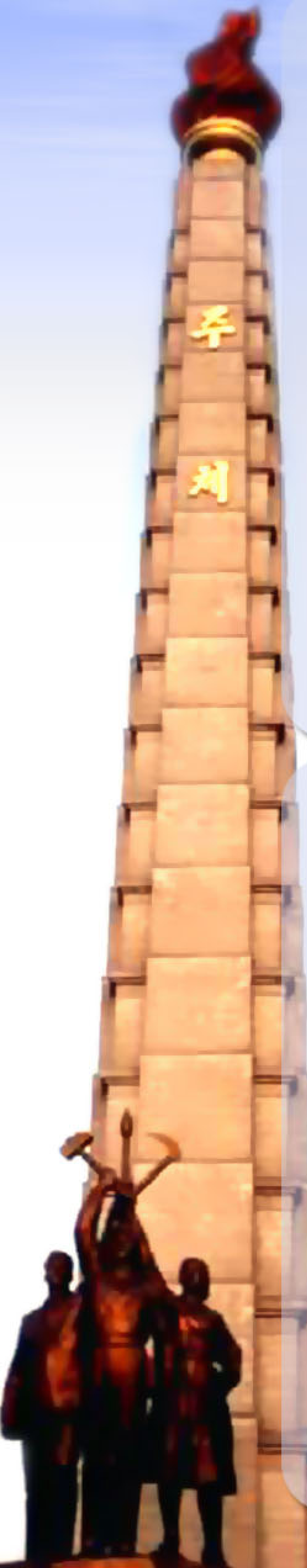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을 안고 솟아 오른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력사적사변의 체험자들인 우리들은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21세기에로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각하 만세!

2002년 2월 13일
백 두 산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각 도당책임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45년 10월 13일



나는 민족통일전선문제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선 다른 나라들에서의 통일전선의 경험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1935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지미뜨로브 동지는 ≪파시즘의 공세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국제공산당의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 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가장 야수적인 히틀러의 파시스트독재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독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자기 나라 인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노예화하며 전 세계를 파쇼화하려 하였습니다. 파시스트들의 유혈적 독재와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하여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민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인민전선에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본가들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인류를 노예화하려는 국제파시즘에 대한 반격의 필요성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는 물론, 일부 자본가들에게도 절실하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파쇼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정복은 제2차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신호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국제공산당 제7차 대회에서 인민전선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대회는 각국 공산당들에 반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민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전술적 방침은 프랑스공산당과 스페인공산당에서 제일 먼저 채택되었습니다.

동방에서는 아시아인민들을 정복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음모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에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며 식민지화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이 파쇼화의 위험에 직면한 나라들에서는 인민전선을 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민전선이나 민족통일전선은 다같이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본질은 같지만 매개 나라들이 처한 구체적 형편에 따라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민족통일전선의 좋은 실례를 우리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만주를 강점하고 중국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자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고 민족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항일구국투쟁에 나 설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공산당의 이 제의는 국민당반동파의 완고한 태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시종일관한 성의있는 노력은 점차 전 중국인민의 지지를 받게 되였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마침내 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이 이루어져 항일민족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완고하던 국민당반동파도 민족통일과 항일구국에 대한 중국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못이겨 부득이 공산당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전세계민주주의 역량의 해방전쟁이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파시스트기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된 조선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조선이 나아갈 길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오래 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로 인하여 조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심히 억제 당하였으며 조선사회는 봉건적 잔재를 다분히 가진 식민지사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에서는 봉건적 착취관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오늘 조선인민 앞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과업이 나서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혁명을 영도할 것입니까? 노동계급이 영도할 것입니까 자본가계급이 영도할 것입니까? 과거 조선의 자본가계급은 일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으며 ≪민족개량≫이니, ≪민족자치≫니 하는 구호를 내걸고 인민을 기만하였습니다. 물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나선 민족자본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 것은 조선노동계급이였습니다. 1925년에 창건되었던 조선공산당은 파벌싸움으로 인하여 1928년에 해산되었으나 공산주의 운동이 이것으로 종식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영용 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와 야합한 조선의 자본가계급이 혁명을 영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끝까지 영용 하게 싸운 노동계급만이 조선혁명을 영도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영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2차 대전 후에 조성된 유리한 국제정세와 아울러 북위 38도를 계선으로 하여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의 군대와 사화주의 국가인 소련의 군대가 남북에 진주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우리 당의 역량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못한 조건을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지로 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만 군중을 우리편에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식층, 종교인, 자본가들도 비록 비조직적이나마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직과 역량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들도 분산된 상태에서 점차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현 계단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들을 무원칙하게 배격하여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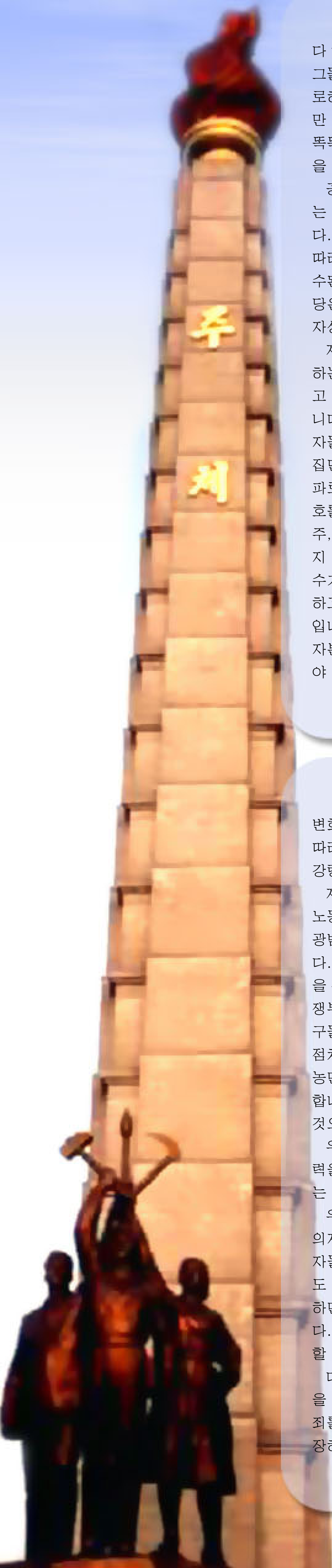
과거 공산당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선전과 종파분자들이 끼친 해독행위로 말미암아 공산당은 아직도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일부 군중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통일전선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므로 일본제국주의 주구들과의 연합이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는 연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만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을 집결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에서 공산당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당원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인민대중이 공산당을 따라올 것입니다.

민족자본가들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항상 동요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그들이 자기의 협소한 계급적 이익을 위하여 대중을 기만하거나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족자본가들은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하며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동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자본가들이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사업에 열의를 내지 않고 동요한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 지식인들, 지어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그들의 죄행과 동요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폭로하고 비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대중으로 하여금 민족자본가들의 정체를 똑똑히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공산당의 정책을 철저히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은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주장하는 당파와는 서슴지 않고 합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결코 그들의 뒤꼬리를 따라 다녀서는 안되며 더욱이 다른 당에 흡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당은 언제나 그들과 합작하면서 자기의 독자성을 고수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제국주의 주구들을 숙청하는데 대하여 한국민주당은 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민주당은 어제까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였던 지주와 예속자본가들의 집단입니다.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은 친미파로 돌변하여 일본의 보호대신 미국의 보호를 요구하여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의 지주, 자본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주구가 되지 않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손발이 되어 조선인민을 착취하고 압박하였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친일지주, 예속자본가들과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숙청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제국주의 잔재요소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민족자본가들도 역시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도 과거 많든 적든 일본제국주의에 복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부르짖고 있는 때에 그들의 죄행을 폭로하며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통일전선 내에서 그들과 단결하는 동시에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근로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족자본가들의 동요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하여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제국주의의 주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사람 밑에서 일하였다 하여 덮어놓고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 40년이나 되는 기간에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제 기관에 들어가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혁명을 파괴하려고 의식적으로 인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한 자라든가, 일제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라든가, 일본제국주의에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협력한 분자는 물론 주구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서는 대중을 발동시켜 대중적인 투쟁을 통하여 반드시 숙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일제 기관에 복무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은 하급사무원들을 주구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양하고 개조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재생할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과업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계단을 뛰어 넘을 수 없으며 혁명의 현 계단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투쟁대상은 제국주의 세력을 다시 부식하려는 제국주의의 주구들과 또한 그와 결탁하는 봉건세력 즉 지주들입니다.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봉건세력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이 핵심이 되고 광범한 농민들과 애국적 지식인들, 지어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민족자본가들까지 망라하는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현 계단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요구인 당의 기본강령은 움직일 수 없으나 전술적 요구인 행동강령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노동자에게≫라든가 ≪토지는 농민에게≫라는 것과 같은 공산당의 기본강령은 변할 수 없으나 행동강령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세에 가장 적합한 행동강령을 내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면 우선 노동자와 농민들의 동맹을 강화하여야 하며 광범한 농민들을 우리편에 쟁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소작료를 감면하는 투쟁부터 시작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투쟁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전체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투쟁은 작은 것에서 점차 큰 것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고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공산당의 대열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선 당내에 기어들어 온 기회주의자들과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일관한 원칙이 없으며 마치 박쥐와도 같이 오늘은 여기 붙고 내일은 저기 붙고 하면서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경계해야 할 무리들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공산당원의 탈을 쓴 일제주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좌적 언행을 일삼고 있으며 지금 당장에라도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소비에트≫정권을 세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공산당을 파괴하고 노동계급을 속여 혁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당내에 기어든 이와 같은 이색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화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의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소박한 공산주의자도 일단 권력을 잡으면 개인의 공명과 이익에 사로잡혀 부화하고 타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뿐 아니라 당을 군중으로부터 이탈케 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에게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이 진실로 인민을 위하여 투쟁한다면 인민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줄 것이며 심지어 우리를 똑똑히 알지 못하고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민권≫이요, ≪민주≫요 하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인민에게 권리를 주는 정치, 인민에게 주권이 있는 정치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에는 미국이나 영국식 ≪민주주의≫가 맞지 않습니다.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에는 조선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업은 아직 충분히 각성하지 못한 군중을 빨리 교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누가 자기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누가 그것을 해치는가를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힘을 다하여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주장을 꾸준히 해석 선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에게 가르쳐줄 뿐 아니라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줄 알아야 합니다.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며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매 공산당원들은 당 대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우 당들과 성심성의로 합작하며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끝)

1권 제2장

잊을수 없는 화전

1. 화성의숙
2. 환멸
3. 타도제국주의동맹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5. 독립군의 녀걸 리관린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화성의숙에서는 학교운영자금의 부족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의숙의 학생수가 100명도 채 되지 못했으나 당시의 독립군형편에서 그만한 학생들을 먹여살린다는 것도 헐한 일은 아니였다. 정의부가 주인이였지만 돈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였다. 백성들한테서 한푼두푼 모은 군자금으로 행정, 군사, 민사의 세가지 틀거리를 다 갖추고 한개 국가와 맞먹는 허울을 가까스로 유지해나가는 정의부로서는 돈을 크게 대줄 처지가 못되였다.

화성의숙당국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학교운영자금모연공작에 주기적으로 동원시키였다. 학생들은 20명이 한조가 되어 자기의 출신중대에 들어가 무기를 받아가지고는 두달동안씩 정의부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다가 기한이 되면 다른 조와 교대하군 하였다. 그렇게 돈을 모았대야 몇달을 넘기지 못하고 인차 바닥이 나군 하였다. 그러면 또 길림에 올라가서 정의부에 손을 내밀었다.

한번은 최동오숙장이 겨울나이준비를 위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정의부본부에 숙감을 파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숙감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와 3중대장을 나쁜놈이라고 욕하였다. 화성의숙에 주려고 내놓았던 돈을 3중대장이 먼저 가로채가지고 가서 자기의 결혼식비용으로 몽땅 써버렸다는 것이였다. 어찌나도 돈을 물쓰듯했던지 며칠을 불궈두고 온 동네를 다 먹이고도 음식이 남아 이웃동리 사람들까지 불러다먹이였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분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정의부금고에 있는 돈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였다. 그 돈은 백성들이 죽을 먹고 끼니를 건느면서도 나라를 찾아달라고 푼전을 모아 군자금으로 바친 돈이였다. 돈이 없으면 짚신을 삼아 팔아서라도 군자금을 내고서야 마음을 놓는 우리 인민이였다. 3중대장한테는 그런것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였다. 사리사욕에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너절한 사취행위를 하였겠는가. 총을 잡고 적과 혈전을 벌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은 지휘관이 그러한 탐오행위를 꺼리낌없이 하였다는 것은 독립군의 상층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을사조약≫후 최익현이 지휘한 순창의병의 패보를 듣고 수백명의 의병을 모아 전라도일대에서 맹활약을 하던 한 의병장은 자기의 부하가 백성의 재물을 략탈한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탄식하던 끝에 부대를 해산하고 산속에 숨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병장이 백성에 대한 침해를 얼마나 큰 수치로, 죄악으로 받아들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3중대장의 비행은 결국 인민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림강에서 살 때 독립군의 몇몇 대원이 조선에 건너가서 농민들의 소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대원들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우리 집에 왔다가 아버지한테서 호된 추궁을 받고 돌아갔다. 그 당시 독립군이 군자금을 거두려고 관할구역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나타나면 지역을 책임진 사람들이 아무 집에서는 돈얼마, 아무집에서는 쌀 몇말 하는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부탁에 돌리였다. 주민들은 그 문서에 적혀있는 량만큼 돈이나 식량을 군자금으로 바쳐야 하였다. 가난한 농사군들한테는 이것이 큰 부담이였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그런 사정은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으며 저마끔씩 관할구역을 정해 놓고 승벽내기로 그 울타리를 넓히였다. 어떤 독립군들은 다른 무장단성원들이 모연해오는 자금을 중간에서 협박하여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기도 하였다. 크고작은 무장단성원들이 저마끔씩 인민들한테서 경쟁적으로 돈을 긁어들이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순전한 납세자, 돈을 대주고 쌀을 대주고 잠자리를 대주는 시중군들로밖에 보지않았다.

이런 비행은 지난날 봉건사회의 관료배들이 하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은 궁궐에 옥관자를 쓰고 앉아 인민의 피땀을 짜낼 새로운 세금법만 만들어내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끊임없이 털어갔다. 한때 봉건정부는 경복궁을 짓는데 막대한 돈을 써버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세(통행서)라는 것까지 생각해냈다. 그렇게 긁어간 돈으로 대학이라도 하나 세우고 공장이라도 지어놓았다면 후손들한테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화성의숙의 진보적 청년들은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경으로 타락하였으니 독립군도 이제는 망해가는 모양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그저 비난하고 개탄할뿐이었다. 지금과 같이 밝은 세상이면 군민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법에 제기한다든가 동지재판 같은 것을 하여 버릇을 떼주겠지만 법도 없고 군률도 무른 당시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다. 정의부에 민사를 담당한 기구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간판뿐으로서 군자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데려다가 볼기를 치는 정도이고 중대장과 같은 사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었다. 그들의 법에는 상층만이 통하는 개구멍이 따로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군과 모든 독립운동자들에게 단단히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경종을 울리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최창걸은 당장 학생대표들을 선출해서 1중대부터 6중대까지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항의를 들이대자고 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정의부가 발간하는 ≪대동민보≫같은 출판물에 글을 써서 독립군의 관료행동을 폭로하자고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3중대장과 처지가 별반 차이없는 정의부본부나 다른 중대장들, 출판물의 편집성원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확신성없는 방법을 가지고 날자를 질질 끌것이 아니라 독립군 각 중대들에 성토문을 보내자고 하였다. 동무들도 그 방안을 지지하면서 나더러 성토문을 쓰라고 하였다. 그 성토문은 ≪ㅌ·ㄷ≫를 조직한 후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에게 가한 첫 비판이였다. 처음 써보는 성토문이어서 무엇인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것 같았으나 동무들이 좋다고 하기에 김시우에게 주어 정의부 통신원이 오면 전하도록 하였다. 그후 성토문은 통신원의 손을 거쳐 인차 각 중대들에 전해졌다.

반응도 어지간히 일어났다. 군자금을 결혼식비용으로 써버린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정의부를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오동진까지도 그 성토문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였다. 이듬해초에 내가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그는 내앞에서 그 성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6중대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모인 중대장, 소대장들과 함께 성토문을 보았다고 한다.

≪그 성토문을 보고 나는 3중대장을 되게 문책하였네. 중대장자리에서 떼던지려고까지 생각했지. 그런 물걸짝들이 독립군망신을 다 시키거든.≫

오동진은 독립군상층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허심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습할길 없어 분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독립군의 타락을 막아내지못하고 그것을 수수방관할 때 오동진이 그 불같은 성미를 어떻게 다잡았는지.

나는 오동진의 말을 듣고 독립군의 부패가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고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고민으로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장의 성토문으로써 독립군의 정치도덕적 타락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독립군은 점점 더 헤어나올수 없는 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자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족주의군대로서의 독립군의 운명이 다르게는 될 수 없었다. 인민들을 거칠게 대하고 그들에게 지나친 경제적부담을 들씌우는데서는 화성의숙의 학생들도 독립군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들도 모연공작에 동원되면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며 경쟁적으로 재물과 량식을 걷어들이였다. 모연에 잘 응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없다고 트집을 걸든가 독립군도 몰라본다는 식으로 까박을 붙이면서 하다못해 돼지나 닭 같은 짐승이라도 바치게 하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조밥만 자꾸 해준다느니, 부식물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밥타발까지 하였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기숙사식당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조밥에 시래기국만 주니 식사질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트집을 걸던 끝에 식당사감을 하는 황세일과 다투기까지 하였다. 황세일은 사감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그런데 식사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생들은 사감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나는 해방직후 의주에서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황세일을 만나 그와 함께 화성의숙시절을 회상한 적이 있다. 그때 황세일은 웃으면서 자기는 화성의숙시절의 교훈을 생각하여 리에 내려가도 절대로 밥타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조밥을 타발하는 사람들은 졸업후 독립군에 돌아가서도 밥타발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필연코 돈이나 권세 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2년후에 군관으로 독립군의 중대와 소대들을 지휘하게 된다는데 있었다. 굶어죽을 각오는커녕 조밥을 먹을 각오조차 되어있지 못한 군대한테서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독립군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운동일반에 대한 실망과 함게 화성의숙의 교육에 대한 환멸은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올랐다. 화성의숙은 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고 나는 화성의숙의 기대를 충족시킬수 없었다. 화성의숙이 내가 바라는 그런 학교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화성의숙이 바라는 그런 학생으로 될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 대한 나의 불만과 나에 대한 화성의숙의 불만은 서로 정비례하였다.

나는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에 심취되면 될수록 화성의숙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져갔고 화성의숙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헤어나올수 없는 고민의 세계에 빠지였다. 내가 의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를 거기에 보내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되고 그들에게 나의 장래를 부탁한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장례에 참가하려고 수백리를 달려와 나를 위로해주고 로자를 찔러주며 의숙으로 등을 떠밀어주던 오동진과 의숙에 왔다고 나에게 술까지 부어주던 김시우며, 최동오며, 강제하 선생들의 생각을 하면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자면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화성의숙의 교육에 재미를 붙여야 하였다. 눈을 꾹 감고 2년동안 공부하다가 배치해주는 중대에 가서 곰상곰상 독립군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앞에서 체면도 세울 수 있었다. 독립군생활을 한다고 하여 새 사조에 대한 연구를 못하거나 ≪ㅌ·ㄷ≫의 터전을 넓히는 작업을 못한다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체면때문에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규정한 교육과 외교를 하면서 적당히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였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낡은 교육과 타협하고싶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삼촌대신 약

방일이나 맡아가지고 가정살림을 돌볼것인가, 아니면 심양이나 할빈이나 길림과 같은 도회지에 가서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심리적 곡절끝에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화전대신 길림을 내 운명의 다음정거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 도시가 만주지방에서 조선의 정치적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리유로 하여 길림은 ≪제2상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였다. 중국관내에서는 상해가 조선혁명가들의 집결처였다.

나는 화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터치고 보다 광활한 무대에로 나가 ≪ㅌ,ㄷ≫의 결성으로 첫 걸음을 뗀 공산주의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려보고싶었다. 이것이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게 된 기본리유였다.

내가 화성의숙을 다니다가 반년만에 중퇴하고 길림으로 간 것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용단이였다. 두번째 용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호두회의후 새 사단을 조직하면서 ≪민생단≫보따리를 불살라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갈 용단을 내린것이 정당한 처신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성의숙을 제때에 떠나지 않고 그 울타리속에서 맴돌았더라면 그 이후 조선혁명을 급속한 앙양에로 승화시킨 모든 공정들이 그만큼 지연되였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길림으로 가겠다고 하자 ≪ㅌ · ㄷ≫성원들은 깜짝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ㅌ · ㄷ≫를 내온 것만큼 이제는 그 조직과 리념을 사방에 펼쳐가야 한다, 화성의숙에 주저앉아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학교를 다녔대야 큰보람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간 다음 동무들도 기회를 보아 독립군대나 적당한 고장에 자리를 든든히 잡고 ≪ㅌ · ㄷ≫의 줄을 뻗치면서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무들은 다 조직의 성원들인 것만큼 어디에서 일하든지 조직의 통일적이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몇몇 동무들과는 후날 길림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는 문제를 두고 이미 김시우와도 의논하였다.

≪집에 가서도 의논해보겠지만 이거 뭐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해보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돈은 없지만 길림에 가서 중학교에라도 다니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총관은 몹시 섭섭해하였다. 그러면서도 의숙을 그만두겠다는데 대하여서는 막지 않았다.

≪자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 친구들과 의논하여 주선해주겠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달구지가 있는 법이야. 화성의숙의 달구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네의 달구지를 타고 가게나.≫

내가 화성의숙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준 김시우가 그처럼 대범하게 리해하여주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총관은 최동오숙장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중퇴하더라도 인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길림으로 갈 때에는 꼭 자기한테 들리라고 하였다.

김시우를 납득시키는 일은 예상회로 순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동오숙장과의 작별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동반하였다. 처음에는 선생이 노여움을 타면서 한참동안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였다. 사내가 한번 뜻을 품었으면 그만이지 중퇴를 하다니 될말인가, 의숙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퇴하겠다는데 이 어수선한 세월에 만사람의 구미를 다 맞출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를 등지고 창가를 향해 돌아섰다.

선생은 그 창가에서 눈내리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성주와 같은 수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학교라면 나도 이 의숙에서 물러가겠네.≫

선생이 폭탄처럼 내던지는 말에 나는 몸둘바를 모르고 함구무언으로 서있었다. 학교의 교육이 어떻다고 정면에서 운운한 내자신의 처사가 숙장선생을 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후 최동오선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옆에 가까이 다가와 어깨우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조선을 독립시키는 주의라면 나는 민족주의건, 공산주의건 상관하지 않겠네. 아무튼 꼭 성공하게.≫

선생은 운동장에 나와서도 퍼그나 오랜 시간 나의 생활에 교훈으로 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선생의 머리와 어깨우에 눈이 내려와 자꾸 쌓이었다.

나는 그후 폭설속에서 나를 바래주던 숙장선생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선생의 어깨우에 쌓인 눈을 털어드리지 못한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 나와 최동오선생은 평양에서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나는 수상이고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간부였지만 그 상봉은 역시 어쩔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상봉이었다. 화전에서 추켜들었던 ≪ㅌ · ㄷ≫의 리념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로 개화하고 있었다. ≪결국 그때 성주수상이 정당했습니다!≫ 선생이 웃으면서 나의 아명을 부르는 바람에 나의 추억은 수십년의 세월을 거슬러 눈내리던 화성의숙의 운동장으로 날아갔다.

곡절많은 정치생활의 파동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로스승은 아무런 설명도 주해도 붙어있지 않는 이 짤막한 말로 30년전에 있었던 나와의 대화를 결속지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한데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지지해주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심각해지였다. 그러나 내가 중퇴사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마음을 놓는 것이었다.

≪네가 학비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데 사람이 돈때문에 주접이 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학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댈테니 너는 그저 품었던 뜻을 꼭 이루어라. 이왕 새길을 가려고 결심한 바에는 걸음을 걸어도 큼직하게 걸어라.≫

어머니의 말씀은 새로운 포부를 품고 무송에 돌아온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무송에 와보니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알고 있던 많은 동무들이 살림이 구차하여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깨우쳐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ㅌ · ㄷ≫를 방금 조직하고 그 뿌리를 사방에 뻗쳐가려고 결심한 뒤여서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서는 못견딜 심정이었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송시내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가 1926년 12월 15일이었다. 새날소년동맹은 말그대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할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소년조직이었다.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규모를 넓혀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 동맹이 내세운 구호도 대단하였다. 그때 우리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나는 새날소년동맹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원칙과 사업체계, 동맹원들의 생활규범을 규정해주고 길림으로 떠날때까지 그들의 동맹생활을 지도해주었다.

1926년 12월 26일에는 ≪ㅌ · ㄷ≫와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한 경험에 토대하여 어머니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후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무송현성안은 물론, 멀리 주변농촌의 넓은 지역에까지 다니며 도처에 야학을 내오고 조선녀성들에게 우리 나라 글을 배워주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있었다.

무송에서 얼마쯤 머무르다가 길림으로 들어갈 때 나는 약속대로 화전에 있는 김시우를 찾아갔다. 김시우는 김사헌선생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의 앞으로 편지를 써주었다. 내가 가면 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소개신이었다. 그것이 김시우와의 마지막상면이였다. 김시우는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가운데서도 가장 인상깊은 한 사람이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대중계몽과 후대교육으로부터 무기구입, 자금조달, 국내공작원들의 길안내, 비밀문건과 비밀자료들의 전달, 무장단체들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가 관계하지 않은 분야란 거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성심성의로 뒤받침해주었다. 우리가 ≪ㅌ,ㄷ≫를 뭇던 날 밖에서 망을 봐주며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도 김시우였다. 김시우는 나와 헤어진후에도 영풍정미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독립군에 식량을 대주고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후원을 열심히 하였다. 중국에서 국내전쟁을 할 때에는 혁명후원회 위원장으로 화전에서 일본군대와 장개석군대의 침해로부터 조선사람들의 생명재산을 지키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였다. 김시우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1958년이었다. 한평생 민족을 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는 그것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나도 그의 행처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전천에서 중병이 들어 림종의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식들앞에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의 연고관계를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면 왜 장군님을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는가, 장군님이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장군님이 지금 우리 전천땅에와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수 없는 형편이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들이댔다.

그때 내가 정말 전천군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었다.

김시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죽기전에 옛날일을 이야기하는건 너희들이 무슨 덕을 입으라고 그러는게 아니다. 우리 집 래력이 여사여사하니 너희들도 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라는거다.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의 걸음을 한시라도 지체시켜서야 안되지.≫ 그 로인 성미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고정하였다. 아들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도 나를 만나고 나도 그를 만났을 것인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 나로서는 평생 풀지 못할 한이다.

나는 화성의숙시절을 생각하고 ≪ㅌ · ㄷ≫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김시우를 회고하군 한다. 김시우를 떼놓고서는 나의 화전시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화전에서 새 사조를 보급하고 ≪ㅌ · ㄷ≫를 결성하던 잊지 못할 나날에 나를 도와 숨은 노력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김시우였다. ≪ㅌ · ㄷ≫가 불패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던 것은 김시우와 같은 성실한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인민의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며 커다란 포부와 결심을 안고 길림으로 향하였다.

민족의 역적을 기어이 매장하자

청년학생들과 함께 - 주체91 2월 13일~14일

이회창의 반북반통일광증이 날이 갈수록 극도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이회창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데서 또다시 이북을 걸고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해결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과거 핵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여야한다느니 미국과의 신뢰를 강화해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동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느니 하고 떠벌였습니다.

이회창의 이 망발을 두고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이회창의 미국행각을 두고 분노의 치를 떨고 있던 우리 국민이였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회창의 미국행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노린 반역자의 추악한 매족행각이였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 대권을 이뤄보려는 정치사기꾼의 비열한 구걸행각이였습니다.

바다건너 상전을 찾아가 반북반통일을 구걸한 것도 모자라 돌아와서도 그것을 제창하는 이회창을 보니 역시 천하에 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노라는걸 더욱 똑똑히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북강경정책으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를 새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으려는 부시행정부의 악에 추종해나서는 것보다 더한 민족반역인 것입니다.

이회창은 미국행각에 이어 이번에도 민족의 염원에 도전하여 북을 심히 자극하고 한반도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이회창의 망발이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부시방한을 계기로 제놈의 미국행각때처럼 또다시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충실한 주구라는 걸 보여주며 그 댓가로 상전의 신임으로 대통령감투를 기어코 뒤집어 써보려는데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 더이상 이런 친미역적을 그대로 놔둘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아가 권좌에 앉으면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지난 시기 민족반역자들의 행각이 보여준 심각한 교훈입니다.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매국노, 반통일역적, 너절한 인간쓰레기가 야당총재의 감투를 쓰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자체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수치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족반역아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 것입니다.

학생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지금 벌이고 있는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을 비롯한 반이회창투쟁을 이회창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로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 학교출신의 모든 사람들은 신성한 교내에 민족반역자 이회창의 행적이 찍혀 있는 것을 대외적 수치로 낙인하고 그를 제명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반부시반미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부시의 방한과 관련해 불타고 있는 반부시반미기운을 더욱 고조시켜 나감과 동시에 당면한 반이회창투쟁도 다같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려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미국의 졸개들이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기를 꺾어놔야 합니다.

반이회창투쟁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연대공동투쟁을 잘 벌이는 것입니다. 당면하여 청년학생들은 지난 2일 민중연대와 민주노총를 비롯한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여나선 여건에서 이들의 투쟁에서 종합세해서 범국민적인 반미공동전선을 형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전국민적인 반부시반미공동투쟁의 불길이 반이회창,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과 합세해 거세게 타번지도록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부시의 전쟁행각을 저지시키고 상전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려는 이회창의 흉계를 파탄시켜야합니다.

오늘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지닌 의무는 막중합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자각하고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민족의 역적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장으로써의 의무를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은 민족자주통일에로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온갖 반역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이 제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해도 자주통일의 거세찬 흐름은 결코 막을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중과 힘을 합쳐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을 기어이 매장하고야 말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6일

2월명절 맞아 특보발간
2.16동지회

경기도 수원시에서 활약하는 ≪2.16동지회≫ 회원들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특보 1, 2를 발간했습니다.

특보1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헌시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하여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 ≪만대에 빛날 영원불멸할 업적≫, ≪만민이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우리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삽니다≫ 등이 실렸습니다.

특보2에는 ≪위인의 거룩한 발자취≫라는 제목아래 2월 16일을 맞으며 평양방송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1만1326개 단위에 105만8260여리의 노정을 거쳐 현지시찰하셨다고 전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북 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금강산 천연바위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겨넣은 소식도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경향각지 주민들
김정일장군님 탄신절 축하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경향각지 주민들이 그분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노동자 김모씨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절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그분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셨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우리 노동자들은 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겨야할 품은 노동자, 농민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펴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들의 꿈이 실현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탄신절을 맞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서울 세종로에 사는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은 말그대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일뿐 아니라 인류공동의 명절이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사실은 그분이시야말로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시라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다. **김정일**장군님 계시기에 새로운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될수 있었고 통일운동이 높은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수 있었으며 통일의 전망 또한 밝은 것이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반통일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머지않아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

2.16에 즈음해 축하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경애하는 장군님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축하문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축원의 꽃바다속에서 탄신절을 맞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전체 조총련일군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성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1942년 2월 1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로 탄생하신 것은 우리 겨레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받아안은 일대 경사였으며 세기를 이어 영원히 번영할 태양민족, **김정일**강성대국의 출현을 확약한 역사적 사변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조국청사와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신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반세기를 넘는 분열사상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며 제국주의고립압살의 쇠사슬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하시어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친어버이사랑을 다 돌려주신데 언급하고 장군님의 영도따라 조총련조직을 굳건히 사수하고 새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1)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16일

우리 조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의 존함으로 위용 떨치는 필승불패의 나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세기와 다름없이 비상한 정력을 지니시고 새 세기의 력사적진군을 이끄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은 전도가 펼쳐 지고 있다.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진감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 진군이 힘있게 다그쳐 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백두광명성이 솟아 오른 2월 16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최대의 행운을 받아 안게 된 가장 의의 깊은 날이다.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이 경사의 날이 있어 주체의 혈통이 굿굿이 이어 지는 조선혁명이 있고 태양의 세기로 빛을 뿌리는 오늘의 희망찬 21세기가 있다.

뜻 깊은 2월의 명절을 맞는 우리 인민들은 지금 60성상의 가장 성스러운 력사를 수 놓아 온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 없는 흠모심과 숭배심으로 심장을 불 태우고 있다.

우리 인민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영상을 우러르며 오직 장군님을 따라 싸워 온 인민이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였고 **김정일**동지의 필승의 기상과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이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민으로 위용 떨치게 한 원천이였다.

김정일동지와 우리 군대,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사상과 뜻도 정서와 감정도 하나가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 왔으며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를 맺게 되였다.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세기를 이어 억세게 다져 진 위대한 혼연일체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는 명절이기에 올해의 2월의 명절이 더없이 소중하고 의의 깊은 날로 되고 있는것이다.

올해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은 새 세기의 리정표로 되는 뜻 깊은 명절이며 인류공동의 경사이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이날을 다채롭게 경축하고 있으며 우리 혁명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 있다.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나가는 시대적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멈춰 세울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투쟁력사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 백승의 위훈을 떨쳐 온 걸출한 령도자, 전설적위인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탁월한 령도자는 위대한 혁명활동력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사는 격동적인 사변과 거창한 변혁으로 충만된 20세기와 21세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으로 새겨 져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의 40년대와 00년대에 벌써 절세의 위인으로서 인민의 칭송을 받으시였고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와 90년대에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 오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력사는 그 성장의 로정도 비범하며 그 령도의 자욱도 특출하다.

일찌기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며 당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추대되시여 40성상에 달하는 모든 년대들을 백승의 위훈으로 수 놓아 오신 사회주의위업의 걸출한 령도자는 오직 **김정일**동지 한분이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혁명이 헤쳐 온 길은 참으로 간고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하루도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셔 진 날이 없었고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시련의 언덕을 수없이 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겪을수 있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다 겪으시면서 불굴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 오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력사는 조국수호의 최전선, 반제투쟁의 첨예한 전초선에서 사회주의붉은기를 견결히 고수해 오신 강철의 령장의 력사이며 우리 시대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대하고도 첨예한 문제들을 빛나게 해결하여 오신 위대한 정치가, 창조와 건설의 영재의 력사이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세기의 90년대에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으신것은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게 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사의 행군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 놓아 오신 전설 같은 혁명실록은 만민의 심장을 끝 없이 격동시키고 있다.

혁명투쟁의 간고성과 장기성, 혁명업적의 위대성과 풍부성에 있어서 류례를 볼수 없는 불멸의 혁명력사를 창조하신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세기를 이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향도자로 칭송을 받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는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으로 수 놓아 진 숭고한 도덕의리의 력사이다.

혁명의 승리는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를 끝까지 지켜 나가는 영광스러운 투쟁속에서 이룩되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조국과 혁명에 대한 헌신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령도자의 위인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나 혁명이 멀리 전진한 시기에나 변함 없는 자세로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시는 우리 시대 공산주의도덕의 최고대표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년세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시여 수령님을 보좌하시면서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모든것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귀착시키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수령중심의 정치륜리가 정립되고 그 빛나는 모범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립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에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력사는 만사람의 귀감으로 되는 완성된 도덕적풍모를 지니시고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천년만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100프로 고수, 100프로 계승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와 같은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도 언제나 자신은 어버이수령님의 변함 없는 전사라고 하시면서 현지지도의 길을 걸어도 수령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백가지, 천가지 문제를 다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전개해 나가고 계신다.

혁명적의리의 영광스러운 서사시가 창조된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의 력사를 수 놓으시며 우리 인민모두를 수령을 받들줄 알고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 참다운 혁명가,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릴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는 총대를 틀어 쥐고 총대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해 오신 전설적영웅의 력사이다.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있고 번영이 있으며 찬란한 미래가 있다.

사회주의위업을 이끄는 령도자의 현명성은 총대를 틀어 쥐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선군령도, 총대중시정치로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새 력사를 펼치신 희세의 령장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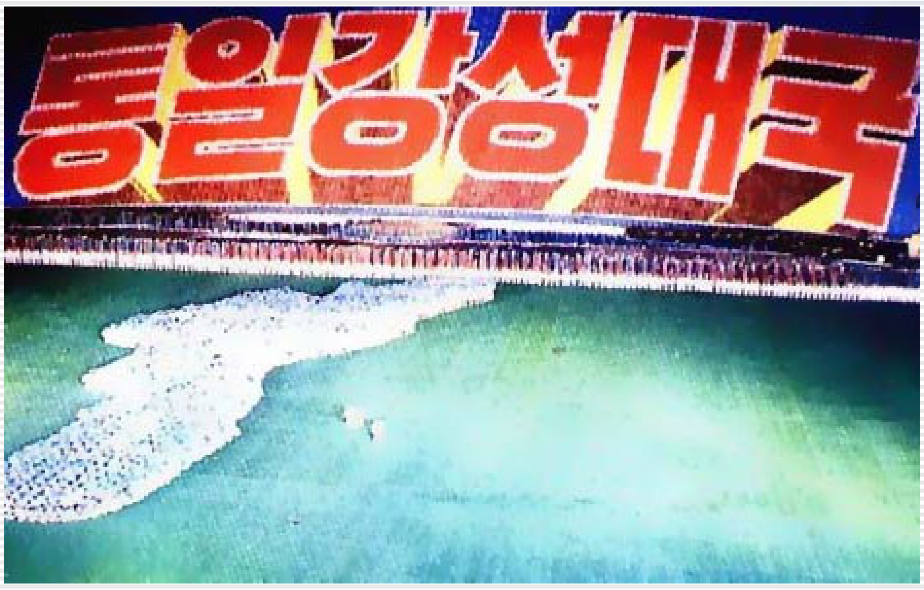
백두산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총대와 함께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을 이끌어 오시는 전 기간 언제나 총대를 틀어 쥐시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다져 오시였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있을수 없다는 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걸음마다 제압하신 위대한 령장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총대를 중시하는 위대한 령장의 밑에서 강위력한 군대가 자라나고 불패의 인민이 자라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 떨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영원히 총대와 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적인민으로 되게 되였다.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는 적들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쯘하게 갖춘 인민군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과 혁명은 끄떡없었고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가혹한 시련을 오래동안 겪으면서도 언제나 든든한



부시 방한 D-3, 전국 ≪비상시국≫

16일 9개 대도시 동시다발 반미시위 진행

수도 서울 — 조지 부시, 한 발자국도 어림없다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한반도 전쟁책동,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6.15 남북공동선언 파탄내는 부시방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각계 사회단체와 대학생 약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연대 이종원 씨의 사회로 열렸다.

먼저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얼마전 내일신문이 진행한 부시 방한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부시 방한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북의 통일을 위해 대북강경정책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부시 방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통일연대 이천재 대표는 ≪지난 해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선포한 마당이며,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기운으로 나가는 시기, 부시의 대북 강경 발언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라며 부시 미 대통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용산지부 이호영 위원장은 ≪91년 용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영구주둔을 꿈꾸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한미투자협정 · WTO 반대 국민행동 소속 이종희 씨도 ≪현재 부시 미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한미투자협정, WTO 수입 개방을 강요하며 우리 민중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총련 임시의장 광운대 정종성 총학생회장은 ≪명동성당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데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을 생각하면 조금도 힘들지 않다. 우리 모두 6.15 공동선언을 움켜쥐고 부시 방한 저지,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자≫고 전했다.

이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으며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한총련 한 관계자는 ≪오는 20일 5천여명 정도의 대규모 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총련은 부시 방한 저지 선봉대를 구성하며 이색적인 시위는 물론, 부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시 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과 가면, 부시 미 대통령을 비판하는 각종 개사곡 등이 선보여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국내 대부분 언론사와 미국의 ABC, 일본의 NHK 방송사, AFP,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펼쳤다. 또한 결의대회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연설자들의 주장을 듣고 박수를 보내는 등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광주 전남 — 7천만겨레의 분열일삼는 부시반대

≪미국에서는 고물이라고 버리는 F-15기를 우리나라에 팔아먹을려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광주전남 민중연대 주최, ≪평화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저지 반미결의대회≫가 오늘(16일) 3시 각계 사회단체 및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농총연맹 광주전남지역 전광훈 의장은 ≪미국 군수자본의 돈벌이 때문에 7천만 겨레의 분열을 일삼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며 ≪5 · 18시민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시 방한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자≫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영민 본부장은 ≪현재 우리 공기업 중에서도 제대로된 공기업의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 얼마나 있냐? 공기업 대부분 50%이상의 자본이 외국자본이며, 이것마져 민영화, 사영화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 경제 주권이 미국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는 증거다≫며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농민에겐 수입개방 압력을 하는 미국의 경제 침탈을 저지하자≫고 말했다.

이어 결의문에서는 ≪미국의 MD체제에 남한을 편입시키고 이미 단종되어 고철이 되어버린 보잉사 F-15기 구매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한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방한이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론 도움이 되지 않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고, 또한 김대중 정부에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 계 시민 사회 단체 및 학생들은 광주 밀리오레를 거쳐 도청까지 시가 행진을 진행하고, 부시 허수아비 화형식을 전개하기도 했다.

목포 — 전쟁반대, 평화실현, 부시방한반대

부시 미대통령의 19일 방한을 앞두고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방한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목포지역 시민 사회 종교 등 53개 단체로 구성된 ≪6. 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목포지역 통일연대(상임대표 최태옥)≫ 소속회원 200여명은 16일 오후 목포역광장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목포시민대회≫를 연후 목포시내 시가지를 돌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통일연대 소속 목민협, 시민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사암연합회, 경실련, 서남권발전연구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 회원이 참가했으며, 일부 시의원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이에 앞서 15일 목포통일연대(상임대표 최태옥)는 목포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확대를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정책을 중지할 것 ▲6. 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 것 ▲미국의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중단할 것 ▲미국의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할 것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수구보수 세력은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태옥 목포통일연대(목포시민단체연대 대표) 상임대표, 박광웅(목민협 상임의장) 공동대표, 서순덕(목포새세대여성단체협의회장) 공동대표, 서창호(목민협 공동의장) 교수, 강만동 목사(목민협 고문), 서기옥 목포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문익주 목포와이엠시에이 이사장, 박춘자 목포와이엠시에이 이사장, 김치선 민주노총 서남지구협의회 위원장, 김진호 한국노총 목포지부장, 고장렬 목사(목민협 공동의장), 정석봉 5. 18민중항쟁목포동지회장(시의원), 박현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구신서 전교조목포지부공립위원장, 곽재경 민예총목포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같은 이북 ≪악의 축≫ 발언 이후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전쟁확대 중단과 반미여론은 오는 19일 부시대통령의 방미와 함께 더 확산될 전망이다.

민노당소속 향토예비군 반전시위

민주노동당 소속 향토예비군 30여명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미국대사관옆 한국통신 사옥 앞에서 반전(反戰)을 주제로 한 노상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예비군 복장 차림으로 회견을 진행한 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에 전쟁 기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항의 서한을 대사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배심을 가지고 20세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릴수 있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총대와 함께 혁명의 천만리길을 진두에서 헤쳐 나가는 장군형의 정치가, 탁월한 선군령도로 인민의 행복과 미래를 지켜 주는 위대한 수호자를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심장깊이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는 불 타는 애국애족의 열정을 지니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오신 세기적인 기적의 력사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더 빨리, 더 힘차게 달려 나갈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대단하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가 확고히 마련되였다.

우리 인민이 온갖 시련을 이겨 내고 조국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갈수 있은것은 수십성상 애국의 일념을 지니시고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시고 일떠세워 주신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어느 하루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신적이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기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문화건설 등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 나게 되였으며 온 나라에 창조와 건설의 북소리가 세차게 울려 퍼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수십년세월이 흘러 갔지만 속도전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 난 1970년대의 나날들을 잊지 않고 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의 자욱은 ≪고난의 행군≫ 력사의 갈피마다에도 력력히 아로새겨 져 있다.

사면팔방으로 달려 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인민에게 락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7년기간에 무려 29만 1,730여리에 달하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력사에 지울수 없는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이 길에서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일떠섰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마련해 주신 위력한 토대가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는 반드시 점령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는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이끌어 오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력사이다.

사회주의정치의 위력은 천만대중을 하나의 뜻과 의지로 묶어 세우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지향점에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과시된다.

그 성공의 열쇠는 첫째도 둘째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끄시는 전 기간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를 창조하여 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굳게 믿고 이끌어 주는 숭고한 광폭정치, 인민을 위해서라면 돌우에라도 꽃을 피우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끝 없는 사랑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구현되게 되였으며 혁명적동지애로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새 력사가 펼쳐 지게 되였다.

한없이 고매한 덕망과 인민적령도풍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서 우리 당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은 어머니당으로, 우리 정권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강화발전되고 혁명동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고상한 미풍이 전 인민적풍모로 되게 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 하늘의 태양으로 받드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헤쳐 오신 60성상의 로정은 수령의 위업에 끝 없이 충실하고 인민에게 헌신하는 위대한 혁명가의 력사이며 총대의 위력으로 혁명을 보위하고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령장, 위대한 정치가의 력사이다.

이 영광찬란한 력사가 있기에 조선이 빛나고 인류의 자주위업의 앞길에 끝 없이 밝은 전도가 펼쳐 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랑을 안고 21세기의 혁명적진군을 억세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새 세기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20세기 혁명적진군의 계속이며 백두의 혈통을 계승하여 주체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진군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동서고금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자질과 풍모, 뛰여 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21세기의 영광스러운 혁명실록을 수 놓아 가고 계신다.

인류의 사상리론적보물고는 수많은 사상가, 정치가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풍부화되여 왔다. 이 력사적로정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사상리론적업적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우리 시대 인민들에게 수천수만권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 정신적재부를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풀어 나가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이며 언제나 인민대중을 선생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혁명적인 사상리론활동이며 치렬한 계급투쟁과 창조와 건설로 들끓는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상리론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에는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 전략적로선으로부터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교육과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21세기에 사는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들이 밝혀 져 있다.

오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들이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속에서 널리 탐독되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아갈 길을 찾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21세기가 직면한 사상리론적과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자주와 독립,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바로 여기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 있고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절대적인 사상리론적권위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우리 시대 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는 새 세기의 위대한 정치가, 령도의 거장이시다.

나라와 민족, 혁명의 운명과 전도는 령도자의 정치실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격동하는 21세기는 실력가형의 령도자를 요구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장구한 나날에 사회주의정치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여 오시였으며 그 과정에 뛰여 난 정치가, 실력가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 주시였다.

사회주의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거창한 위업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개척되였고 선군정치, 인덕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도 장군님에 의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되였으며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대화원도 장군님에 의하여 활짝 꽃 펴나게 되였다.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힘을 천백배로 불러 일으키는 령도적수완, 천가지, 만가지 과업이 제기되여도 다 틀어 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는 비상한 전개력, 최악의 시련이 앞을 막아도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전당, 전군, 전민을 총 동원하여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는 능숙한 조직력을 지니고 계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풀지 못하시는 문제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인민은 지금 **김정일**동지의 령도풍모에서 필승의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고 강성대국의 미래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고 있다.

뛰여 난 정치실력으로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새 세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승리자의 영예를 끝없이 떨쳐 나갈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부산

한반도에 전쟁만 몰고오는 부시방한 반대한다

≪전쟁반대 · 평화실현 · 대북강경책철회!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대회≫가 오늘(16일) 2백 여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2시부터 부산역에서 열렸다.

6 · 15공동선언실현부산통일연대, 부산민중연대(준)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부시방한 반대 여론이 사회 구석구석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시 미 대통령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갖가지 피켓과 플랜카드가 부산역 광장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며 대회내용에 관심 가지는 시민들의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민족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부시방한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의 협력과 의지로 풀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모였다≫는 서상권 범민련 부경연합의장의 개회사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세계를 위험과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가고 있다는 김재규 민주공원 관장은 ≪세계를 전쟁으로 위협하는 부시를 결코 환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회 참가율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의 부시 방한 반대의지는 여느 단체 못지 않게 완강했다. 3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백남주 부경총련 의장(동아대 총학생회장)은 오는 19일 원하지 않는 손님이 이 땅에 온다고 서두를 끊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사라고 강요하며 우리들의 명줄을 쥐려는 부시를 사생결단의 의지로 막아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참가자들은 각 단체 대표들의 이어지는 발언에 박수와 구호로 부시방한 반대 의지를 표했고 화형식이 진행되자 반미노래를 부르며 모두 일어나 이를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정이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의 총결의 발언이 이어지고 참가자들은 모두 남포동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남포동에서 가진 정리집회에서는 본행사에서 언급된 부시방한 반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산시민들에게 알리며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총결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하나, 부시대통령은 군사패권주의를 중단하고 전쟁확대를 중단하라.

둘, 부시대통령은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전쟁 책동 중지하라.

셋, 부시대통령은 엠디 강요, 전쟁무기 강매행위를 중단하라.

넷, 부시대통령은 한미투자협정 등 경제주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다섯,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이에 강력히 저지하고 나설 것이다.

대구경북

한민족 이간질하는 부시 오지 마라

민족의 명절 설연휴가 끝난지 며칠되지 않은 오늘 (16일) 대구시내 동성로는 많은 사람들도 북적거렸다. 부시 미대통령의 대북강경발언과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한 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것이다. 바로 16일 ≪신자유주의 경제침탈 · 대북강경책동 전쟁주범 조지 부시 방한 반대 결의대회≫를 위해 300여명의 사람들이 동성로에 모였다.

풍물 길놀이와 학생들의 신나는 문예공연으로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대구경북 민중연대 함철호의장은 ≪전세계 수많은 민중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미국이야 말로 주변국가를 괴롭히는 ≪악의 축≫같은 존재이다. 전세계 민중들이 다함께 투쟁으로 미국을 반대해야 한다≫며 대회사를 밝혔다.

대구경북청년 연석회의 이진상 조국통일실장은 이어진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했지만 미국이야말로 위험한 무기 · 핵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다. 조지 부시 방한을 막아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민중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센터 ≪우리세상≫의 수화공연이 이어졌다. 대회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집회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연이었다.

≪통일이 빨리 됐음 좋겠어요. 우리는 한 민족이잖아요. 조지부시 방한이요? 북한을 나쁘게 말하니깐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해요≫ 수화공연 이후 만난 원화여고 재학중인 여고생의 소박한 바람이다.

수화공연을 마치고 미국의 전쟁책동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대표해 전국민주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이정림의장의 연설이 이어진후 규탄선언문 낭독으로 본 집회는 막을 내렸다. 집회참석자들은 이후 시민들에게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며 거리선전전을 한시간정도 진행하고 다시 집회장소에 모여 정리집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를 지켜보던 이은정(23 · 여)양은 ≪부시 미대통령 방한 얘기를 뉴스는 통해 많이 들었다. 부시가 우리의 한민족인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민족을 이간질시키고 통일을 막으려 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대전

부시! GO HOME!

부시방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난 15일부터 대전역에서는 대전충남통일연대 주최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부시방한 저지 천막농성≫이 한창이다.

농성에 참가한 단체는 목원대 등을 비롯한 4개 대학과 통일연대 소속 23개 단체 등 총 38개에 이르고 있다.

농성일정은 오는 20일까지 6일간으로 천막농성을 비롯하여 유인물 배포 · 거리선전전 · 1인시위(대전역 근처 육교 · 대전역)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부시방한 저지의 당위성을 알려내고 있다.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19일에는 ≪하루단식단≫을 조직할 예정이다.

이번 농성에 대해 전민특위(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대전 · 충남본부 박희인 사무국장은 ≪부시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이라 발언했다. 이는 미국 무기를 우리 나라에 팔려는 음모의 연장선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음모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 ≪이미 시민들이 부시방한의 본질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미소를 머금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선전물을 보던 한 시민은 ≪미국 놈들이 우리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정치인들이 미국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다. 이제는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우리 정체성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현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 1인시위에 참가한 올해 71세인 대전 · 충남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장석종 고문은 ≪부시가 전쟁을 책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앉아서 당할 수만 없다. 비록 나이가 먹었다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고자 한다≫라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덧붙여 ≪6 · 15선언을 지지 · 관철하는데 모두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 이번 책동을 저지하여, 통일의 힘을 발휘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많은 참여를 바랬다.

평화기원 집회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집회와 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시민,사회,종교계 인사 700명으로 구성된 ≪700인 평화선언 준비모임≫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란다는 내용의 ≪부시대통령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점화식과 초등학교 학생의 평화의 바이올린 연주회 등이 열리며 기자회견 후 미대사관측에 평화선언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18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들머리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열기로 했으며 ≪한국YMCA 전국연맹≫도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의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평화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운창기자
연합뉴스 2002/02/17

도쿄서 반전시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본 도착에 앞서 17일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 부근에 300여명이 모여 미군 기지 철수와 미국의 아프간 군사작전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미국 대사관에서 약 4km 떨어진 에비수 공원에 집결, ≪전쟁 중지≫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철수≫등의 구호가 적힌 깃발을 흔들며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일본 각지와 미국에서 온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 회원 약 50명도 부시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미국 대사관 밖에서 미국의 교토의정서 대안 제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2002/02/17

유럽연합, ≪양키의 오만≫ 정면성토

패튼 EU대외관계집행위원 ≪악의 축≫ 비판

크리스 패튼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집행위원이 미국의 패권주의적 외교정책을 정면 성토하고 나섰다.

패튼은 사실상 유럽연합의 국무장관격으로, 지난해 5월 이북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기도 했던 유럽의 대표적 평화주의자 가운데 한명이다.

패튼은 미국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의 발언을 정면반박하는 형태로 미국의 유아독존형 패권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앞으로, 유럽이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강한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착각에 빠졌다

패튼은 처음부터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13일자)에서 ≪미국의 국제정책에 대해 패튼이 좀 과민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자 즉각 패튼이 발끈 하고 나섰다. 패튼은 다음날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제문제를 자기 입맛대로 밀어붙이는 일방주의를 포기하고 국제협력 조성에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반격을 가했다.

패튼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집착과 군사력 과시욕을 ≪극도로 잘못된 것≫(profoundly misguided)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패튼은 ≪빈곤, 인신매매, 독재정권 등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지적한 뒤, ≪또다른 오사마 빈 라덴의 출현을 피하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상하지 못한 빠른 시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 미국의 능력에 대해 과신을 부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과신은 몇가지 위험한 본능을 강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군사력 발휘가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는 유일한 토대이며 미국은 자기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것, 그리고 동맹국들은 선택적으로 유용할 뿐이라는 단순논리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패튼은 . ≪9.11 테러사태의 교훈은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적 협력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진정한 친구는 맹목적 추종자가 아니다

프랑스와 독일도 패튼의 비판에 대해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거둔 승리감에 도취된 미국이 동맹국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독주하고 싶은 심리를 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북,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미국이 대테러리즘 전쟁의 다음단계로 이라크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이 지역에 불안을 확산시켜 미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다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 일각에서는 미국이 테러리즘과 ≪불량국가≫를 퇴출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군사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패튼은 이같은 유럽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정한 친구는 맹목적 추종자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미국 정책의 흐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로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유럽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패튼과 파월의 이같은 설전은 테러리즘과 세계화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럽의 미운 오리새끼, 영국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유독 한나라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의 미운 오리새끼≫라 불리는 영국이 바로 그 나라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9.11 사태 이후 조성된 국제공조체제를 훼손시켰다는 영국 외교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블레어 정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 원인은 영국이 미국에 밀착한 ≪앵글로색슨주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군사,경제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4일 미국과 공동으로 핵실험을 하고 핵실험 자료를 공유하는가 하면, 미국의 차세대전투기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그동안 미국과의 유착을 통해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둬왔다.

블레어 총리는 또한 국내적으로도 이스라엘 건국의 실제 막후주도자인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등이 여전히 막강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친이스라엘적인 미국정책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승선기자
프레시안 2002/02/16

부시 기자회견 내용과 의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15일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는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북미간 대화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이북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표명해 기본적인 대북관에는 변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또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이북에 대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를 거듭 요구,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KBS와 가진 회견에서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히며 이북과 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 공조는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면서 ≪한국을 방문, 한반도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및 동맹관계를 재확인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부시 대통령의 언급은 오는 19일 취임 후 첫 방한을 통해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 및 이북에 대한 대화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북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이북이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이북이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북 탓으로 돌렸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나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북 주민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이는 매우 슬픈 것≫이라면서 이북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재개를 촉구할 뜻임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악의 축≫ 언급 이후 이북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대내에 천명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는 재래식 군비 문제는 남북간에, 핵. 미사일 등 WMD 문제는 북미간에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한미 역할분담론과는 달리 미국이 재래식 군비 문제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WMD를 확산시키고 미국을 위협하며, 나아가 미국의 우방을 위협하는 나라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그간의 강경대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황재훈기자
연합뉴스 2002/02/17

부시, 서울서 ≪악의 축≫ 후퇴 안할 듯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불식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쓰겠지만 ≪악의 축≫ 발언에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 분석가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16일 전망했다.

한 외교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한국에서 안보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북 정책에 관한 용어 선택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부시 대통령의 방한시 배려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팀과 밀접한 다른 소식통도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서 햇볕정책 지지를 표명하고 남북 관계 회복과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을 밝히는 한편 휴전선의 미군 부대와 함께 남북 도로.철도 건설 현장을 찾는 등 다양한 제스처를 구사하며 김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줄 것≫이라고 전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태평양센터 소장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햇볕정책 지지와는 별개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특히 ≪악의 축≫ 발언으로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 정서와 관련,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미국 탓으로 돌린다면 한국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어디까지나 종속변수이고 문제의 본질은 평양에 있다는 게 워싱턴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 타운대학 아시아연구소장도 부시 대통령이 민주 발전과 경제난 극복,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김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겠지만 대북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제는 김 대통령도 할 말은 당당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터 벡 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부장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론과 협상 의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부시 정상회담 결과를 미리 점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배려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데다 △준비된 연설에서는 발언 강도를 조절한다 해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성 발언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연합뉴스 2002/02/16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1)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5월말 발표

▶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 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1. 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자성의 질문부터 던지려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지위, 역할, 임무,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올바르게 해설하는 제대로 된 논문이 한 편이라도 있는가?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일군들은 자기의 학습과 사색에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민족민주전선 대오 안에서 생산적인 논쟁, 창조적인 토론이 널리 진행되고 있는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 있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 힘들다는 데 오늘 민족민주전선이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습과 사색이 없으면 이론이 정립될 수 없고, 이론이 없는 운동력은 좌우경적 편향에 빠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오의 지도력과 결합력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이론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추구하려는 것은 마치 과학기술이론을 개발하지 않은 채로 산업생산력을 발전시키겠다고 헤덤비는 것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사회역사를 진보와 변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조직적으로 단결된 민중의 투쟁력이지만 이론으로 무장하고 실천 속에서 단련된 지도일군들의 착실한 준비가 없으면 그 투쟁력은 잠재력으로 존재할 뿐 현실을 개변시키는 동력은 아직 아니다.

민족민주전선의 일군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다보면 흔히 학습과 사색을 멀리하게 되는 상습이 생긴다. 이러한 상습이 몇 해 동안 되풀이되다보면 대오 안에서는 이론 없는 즉자적 행동만이 남는다. 바로 이것이 전선운동의 강화와 발전을 늦잡히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다.

지금 상승기에 들어서야 할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대오 안에서 지도력과 결합력을 더욱 높여서 위력적인 투쟁력, 생활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오늘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족민주전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민족민주전선은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물에 얽혀있어서 전선운동의 동력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진행로에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묘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민주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일군들이 학습, 사색, 토론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다.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론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완강한 실천력이 뒤따르고 권위 있는 지도력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운동력의 수준은 곧 이론의 수준에 정비례한다.

우리는 이 글을 민족민주전선의 이론정립을 위하여 작성한 토론자료로 민족민주전선의 일군들 앞에 제출한다. 한 사람에게 집필을 맡겼지만, 집필의 전 과정에 우리 내부 안에서 오랫동안 검토와 토론을 거치며 다듬은 글임을 밝혀둔다.

광고

PDF자료집

21세기 태양

시
4 백두광명성찬가

교시
5 주석님께서 영도자님의 위대성에 관해 하신 교시

노작
6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한민전 중앙위
9 21세기 태양이신 민족의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정치원로
10 ≪인간원로≫
11 로숙하고 현명한 정치가 **김정일**동지
12 **김정일**령도자는 현시대의 탁월한 정치가
12 세계적인 정치원로
13 위인 **김정일**
13 ≪세계정치원로 **김정일**각하≫

당중앙위 활동 35년
사회주의수호

주체외교
조중외교
조러외교
조러모스크바선언

2월의 명절
75 인류공동의 명절
75 위인이 받으신 최상의 표창
76 여러나라에서 2002년 2.16경축 준비위원회 결성
80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된 데 대해

21세기의 태양
82 21세기를 조명해 본다
84 **김정일**총비서를 21세기의 태양으로
84 21세기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날 것이다
85 각국에서 **김정일**총비서를 21세기의 태양으로 숭배
86 ≪**김정일**각하는 인류의 태양≫
87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이다
87 21세기는 영광찬란한 **김정일**세기
88 인류가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89 **김정일**총비서는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90 21세기의 태양 -**김정일**
91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날 것이다
92 21세기를 주도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93 축복을 받으시라 21세기의 태양이시여

노래
94 **김정일**장군의 노래

청년주체주의자대오
96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2. 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19세기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3개 대륙에서는 식민지 피압박 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활화산처럼 분출되었다. 역사는 그 활화산을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식민지는 전근대적인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직 노동계급이 사회의 주도역량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의 주체는 처음부터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구성된 식민지 민중으로 되었다.

3개 대륙의 식민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더불어 유럽에서는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며 광란하던 파시스트세력을 반대하는 유럽인민들의 반파시스트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반파시스트운동의 주체는 노동계급의 단독적 역량이 아니었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인민의 반파시스트 민주역량이었다. 역사는 반파시스트운동의 주체를 반파시스트 인민전선(Antifascist Peoples Front, APF)으로 기억하고 있다.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달된 유럽나라들에서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앞장선 투쟁의 주체역량은 당연히 노동계급의 단독적인 역량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광범위한 인민의 반파시스트 민주역량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민족민주전선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3개 대륙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이 전개했던 반제투쟁은 유럽인민의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이 전개했던 반파시스트투쟁에 비할 바 없이 간고하고 기나긴 혈전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인류사회의 진보와 변혁이 최초의 사회주의나라인 소련의 혁명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은 주변부의 사회변혁운동으로 인정되었고 세계사적 의의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3개 대륙의 민족해방운동과 유럽의 반파시스트운동을 이끌어 가는 유일한 영도역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지도는 다시 그려졌다.

유럽의 반파시스트운동은 각 나라에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여 집권하였고 그로써 반파시스트 인민전선은 전선의 깃발을 내리고 그 대신 집권세력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은 민족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Front, NLF)의 깃발 아래 투쟁대오를 재편하였다.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은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알제리,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반제자주역량을 민족해방전선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은 제국주의가 3개 대륙에 조성해놓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체제(neocolonialism)와 그 체제에 의한 지배·수탈을 반대·배격하는 자기들의 전선을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NDF)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처럼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사회역사의 진보와 변혁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하고 있을 때,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세력이 패망하여 쫓겨나간 공백을 틈타서 들어온 제국주의세력은 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을 두 개로 쪼개놓고 조선반도 남측지역의 반제자주역량을 고립·압살하려고 날뛰고 있었다. 제국주의세력이 분할·점령한 조선반도에서 반제자주역량은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저들의 고립·압살책동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니, 역사는 그 투쟁의 주체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남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1946년 2월에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7월에 각각 결성되었다.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자기의 전선운동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1970년대로부터 거의 한 세대가 앞선 1940년대 중반에 벌써 조선민족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라는 깃발을 펄럭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최전선의 불길을 헤쳐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북남)으로 분리되어 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김일성**주석의 영도에 따라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대회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으로 통합되었다. 여기에는 남북(북남)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704명이 참석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전개했던 조국광복회의 전선운동을 계승한 반미민족통일전선운동조직이다. 조국전선은 지금도 북측에 있다.

그러나 이 땅을 무자비하게 할퀴며 물어뜯고 있었던 제국주의세력의 잔혹성은 이를 데 없었으며, 둘로 갈라진 반제자주역량이 헤쳐가야 했던 고난과 시련의 길은 너무 멀었다.

1948년 8월부터 1949년 7월까지 남측에서 투옥된 인원은 15만4천여 명이었으며, 학살당한 인원은 9만3천여 명이었다. 1940년대 말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었던 대량학살, 그리고 3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은 거의 맥이 끊기다시피 하였다. 반면에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은 사회주의 혁명역량으로 강화·발전되고 있었다.

전후 땅 속에서 가느다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의 일부는 3개 대륙의 반제자주역량이 민족민주전선이라는 새로운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던 1970년대 말에 뒤늦게 민족해방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으니, 그것이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이다.

그러나 취약했던 그 전선운동은 곧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으로 꺾이고 말았다. (1985년 7월에 ≪한국 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된 남측의 반제자주역량에 관한 서술은 지면 제약 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내일 계속됩니다)

하나 민족도 하나

조국통일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7.4남북공동성명

현대조선역사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내외정세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어갔다.

남북조선의 혁명역량이 그 어느때보다도 장성강화되었다.

김일성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튼튼히 갖추어 놓았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전례없이 높아졌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우리 인민의 국제적 연대성도 더욱 강화되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이 급격히 높아가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의 대열이 빨리 늘어났다. 특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었다.

우리의 주체적 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이 결정적으로 강화된 반면에 미제와 박정희정권은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어갔으며 심각한 혼란에 부닥치게 되었다. 미제는 아시아인민들의 강력한 반격에 부딪쳐 가는 곳마다에서 패배를 당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더욱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갔다. 미국안에서는 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이 확대되고 경제형편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지배층내부의 모순이 첨예화되었다.

미제가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불안과 공포에 싸인 박정희정권은 한편으로 인민들에 대한 군사파쇼폭압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편으로는 ≪근대화≫요 ≪평화통일구상≫이요 하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나와 인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김일성은 국내외의 급격한 정세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내놓았다.

> **≪우리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이 조국통일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새롭게 내놓은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게 한 주동적인 방침이었다.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접촉하는 데 대한 새로운 방침에 접한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는 남북협상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갔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통일문제를 박두한 현실문제로 보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논의를 널리 벌였다.

야당들은 물론 여당(민주공화당) 내부에서까지도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대중의 목소리에 일정한 호응을 표시하면서 남조선 통치배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남조선 국회에서 한 ≪의원≫은 ≪정당대표들과 만나자고 한 북조선의 제의를 허위선전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잘못이다. 평양에서 만나자고 하여도 나는 갈 용의가 있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 ≪의원≫은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열자≫고까지 주장하여 나섰다.